

코스피 폭락·환율 1,500원 돌파...금융시장 '패닉'

코스피 12.06% ↓ ...역대 최대 하락률
美 9·11테러 다음날 기록 넘어선 공포
금융위기 이후 17년만에 환율도 최고치

국내 금융시장이 중동발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며 이를 연속 붕괴했다.

코스피가 불과 이틀새 19%나 폭락하고 환율이 17년 만에 1,500원선을 돌파하는 등 시장 전체가 통제 불능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가장 컸다. 직전 역대 1위는 미국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2.02%다.

코스피 낙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 코스피는 중동 긴장 고조에 4522포인트 내려 역대 최대로 내렸으나 하루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59.26포인트(14.00%) 급락한 978.4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여파로 역대 최대 폭으로 폭락해 5,100선마저 내준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포인트(12.06%) 내린 5,093.54에, 코스닥은 159.26포인트(14.00%) 급락한 978.44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이날 코스닥 하락률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역대 최대 하락률은 지난 2020년 3월 19일 기록한 11.71%다.

이날 급락장에 코스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를 연속 발동했으며,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4개월 만에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한때 발동됐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중동 사태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간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고점 부담과 함께 높은 원유 의존도, 수출 중심 산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수출 주도 업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는 각각 11.74%, 9.58% 떨어졌다. 현대차(-15.80%)와 기아(-14.04%)도 동반 급락했다.

항공주와 석유화학 업종은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원재료비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다.

여기에 수혜주로 여겨졌던 방산, 해운, 정유 등도 전반위적인 투매에 이날 장중 하락 전환했다.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한국, 일본 등 유가 수입 비중이 큰 신흥국 증시는 원유를 수출하는 미국보다 취약하다"며 "반도체도 약했으니 자동차, 운송, 소재, 증권, 건설 등 경기 민감 산업들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국내 증시만 이렇게 폭락을 맞은 것은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급등한 데 따른 빠른 주가 되돌림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코스피가 5,000 이하로 내려가고 4,000 혹은 그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코스피 랠리의 동력이 이익 개선 전망이 완전히 훼손돼야 하는데 아직 그런 징후는 절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중 한때 1,505.8원을 기록하며 심리치까지 노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이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이다. /임채만 기자·연합뉴스

한전KDN-크로커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

전기버스·상용차 급속충전 등
해의 공동진출까지 포괄 협력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은 4일 "지난달 27일 크로커스와 서울 강남 크로커스 본사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에너지-전력ICT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현 한전KDN 탄소중립 사업처장과 임다나엘지스 크로커스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크로커스 소름 건축, 협약 배경 공유, 기관 대표 축사와 서명식, 협약의 성실 이행 방안 논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전KDN은 전기차충전(EVC)인프라의 효율적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화 AI모델과 분산자원으로서의 EV활용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충·방전 예측 모델 등의 개발에 크로커스와 함께하고자 협약을 추진했다.

크로커스는 전기차 급속 충전시스템 '아셀로 EV'와 전력 최적 제어 솔루션 '아셀로 GRID'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EV급속충전 인프라의 구축·운영 등 EVC인프라 서비스 사업 ▲통합발전소(VPP), VGI&EV-DR 등 전력 유연화 자원으로 활용을 위한 기능 고도화 ▲에너지 AI·빅데이터를 활용한 EVC 운영상의 사용량 예측 및 최적화 ▲자가소비형 태양광 사업의 공동 발굴 및 사업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진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약 이행을 위해 양 기관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우선 적용 대상 지역 및

사업 모델 선정 ▲파일럿(시범) 사업 발굴 추진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해의 공동진출 전략 마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전기차 충전시스템인 CHA-ON의 상시 운용과 오랜 전력계통 운영·감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 자원화용 AI 모델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고도화를 추진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국정과제 이행 및 국민 생활에 기여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도약지원금' 확대

중개형 채무조정제도 포함
노란우산 홈페이지서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소상공인자영업자재출발금과의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재출발금-노란우산 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작년에 이어 재출발금 성실상환자가 노란우산을 통해 폐업 등 예기치 못한 경영상 위기에 대비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재출발금 매입형 채무조정제도에 한해 지원하던 대상을 중개형(신용회복위원회)까지 확대해 채무자 및 대출 유형과 관계없이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약지원금 신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w899.or.kr)에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로 하면 된다.

도약지원금은 오는 12월15일까지 노란우산에 가입하고 재출발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 조정에 정상상환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10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다만 2025년에 동일 지원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재출발금 상환내역확인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면제계획 이행현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채무를 완제한 경우엔 '재출발금 채무완제증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면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다.

제출서류 관련 문의는 재출발금 고객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지원범위를 넓혀 재기 사각지대를 줄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86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납부금지, 목돈마련 등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